

## 문대통령 “추모의 벽 건립에 힘 모은 향군에 감사”

### 청와대 초청 오찬서 김진호 회장 언급하며 고마움 전해

문재인 대통령이 6월24일 “한·미 정상 회담을 위해 미국 순방 당시 워싱턴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이 있었다”며 “추모의 벽 건립에 큰 힘을 모아주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김진호 회장님과 김희중 육군 부회장님, 그리고 미 동부지부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대에게 그 정신을 전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G7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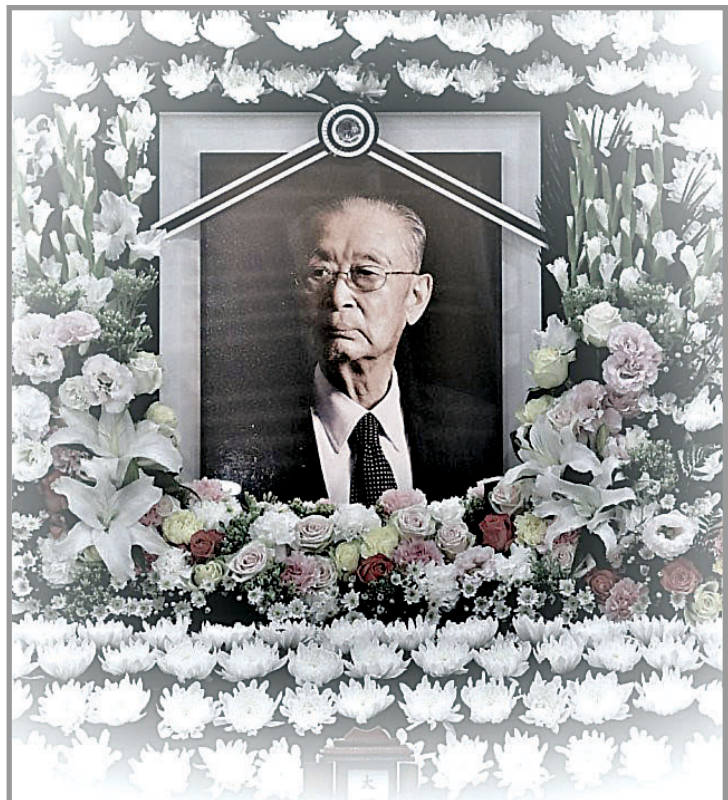
며 “전쟁과 전후 복구에 피와 땀을 흘려준 나라들과 나란히 인류공동의 과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생활 지원과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보상금과 수당을 꾸준히 인상해 갈 것”이라며 “치료를 넘어 평생 건강도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위탁병원과 보훈요양원을 확대해 가까운 곳 어디서나 편안하게 진료와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비롯한 16개 단체, 천안함 유족회장 등 서해 수호 유족, 국가보훈대상 정부포상 수상자를 포함해 50명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추모의 벽 건립에 큰 힘을 모아 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백선엽 장군 서거 1주년

## 님이시여... 그립습니다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면서 북한의 침략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백선엽 장군**이 서거하신지 1년이 되었습니다. 서거 1주기를 맞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천만 회원은 백선엽 장군의 호국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럽고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초석을 쌓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천만 회원 일동

## 향군, “군 사랑하는 분위기로 반전시킬 것”

### 국방부 정책실장 향군 방문, 최근 군 사건 사고 수습방안 논의

6월17일 김만기 국방부정책실장이 향군을 방문하여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최근 잇따른 군의 사건사고 해결을 위한 수습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방부정책실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사건개요 및 수사진행 상황과 언론보도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향군 회장단의 의견을 들었다.

김진호 회장은 “최근 군의 잇따른 사고가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군 일부 부대의 문제가 군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비춰져 군이 다소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군을 질책함으로써 군의 사기가 위축되고 위상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김만기 국방부정책실장이 향군을 방문하여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최근 잇따른 군의 사건사고 해결을 위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수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군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안보의 제2보루인 향군이 적극 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군을 사랑하고 응원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반전시켜 나가겠다”고 제안하며 “국방부와 향군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정책실장은 “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배님들이 조언해 주신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새로 마련된 민군합동 전문 기구인 병영문화개선위원회에 회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향군, 6.25참전용사 위문... 보훈의식 고양

정상민(92)옹 · 이용린(89)옹 자택 방문 위문금 전달



향군은 6월21일 호국보훈의 달과 71주년 6.25를 맞이하여 6.25 참전용사를 찾아 위문했다. 이번 위문은 향군이 매년 실시해 오는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선배 전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6.25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의식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분회가 매년 실시해 오던 중앙보훈병원 6.25 전상자 위문이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렵게 되자 그 대안으로 추진됐다.

이날 향군 김희중 육군 부회장을 비롯한 참전복자부 관계관은 서울 구로구 6.25참전유공자회로부터 추천받은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참전유공자 정상민(92) 옹과 이용린(89) 옹의 자택을 방문해 1천만 향군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위문금을 전달했다.

정상민(92) 옹은 6.25전쟁 당시 전남 광주 통신학교 교관(육군 하사)으로 근무하면서 전쟁을 지원했으며, 이용린(89) 옹은 6사단 19연대 소속으로 1952년 철원 주방어선 전투에서 다리에 파편 상을 당해 지팡이에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다.

한편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6월 호국 보훈의 달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전국 시·도 회 및 시·군·구회별로 6월 한 달간 현수막 설치와 현충원·호국원 및 충훈탑 참배, 전상용사 위문, 충훈탑 및 현충시설 환경정화, 군부대 위문 등 다양한 안보제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장기복무제대군인 임대주택 대상자 30명 확정

향군, "LH와 협조, 실질적 주거복지 실현 추진할 것"

향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중인 장기 제대군인 맞춤형 임대주택 국가유공자 우선 공급사업의 1차 신청자 30명이 선정됐다. 1차 입주 희망자는 130여 명으로 이 중에서 LH가 자체 검증과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한 국가유공자 30명에게는 개별 통보됐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30명을 신청지역별로 보면 서울 10명, 경기·인천 11명, 지방 9명이다.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신청 지역 관할 LH주거복지지사로 7월 5일부터 9일까지 신청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지역 관할 LH주거복지지사는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해당주택을 안내하고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며 65세 이상

은 계약 회수 제한이 없다.

향군과 LH는 지난해 11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1차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향군과 LH가 업무협약 이후 첫 사업이며 LH는 앞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첫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LH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 이달의 안보칼럼

## 징병제와 모병제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은?

###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병역제도 문제

최근 한국사회에는 병역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물론 그동안 병역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 탈냉전이 되고 양극체제의 한 축이었던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이 무너짐에 따라 인류는 대결에서 화합과 교류의 시대를 맞았다. 한국도 '북방외교'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2002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와 협력, 그리고 점진적 통일을 논의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 제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개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6.25전쟁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무력도발과 안보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처해 왔다. 지난 70년 간 한국 국민들은 병역에 대한 당위성과 상무정신, 병역의무는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해왔다. 한국의 징병제는 국가안보에 대한 공동선에 기초한 소명의식과 정신적 가치를 반영하였고, 병역의 양적·질적 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으며, 동시에 방위비 경감과 예비전력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에 비해 모병제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동기유발을 통해 금전적 보상계약의 이행 형태로 군의 직업성 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분업 원리에 의해 국가차원의 인력운영은 효율적일 수 있으나, 군의 사회적 대표성이 저하되고, 우수자원 확보의 어려움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제한요소가 수반된다. 2000년대 초 한국사회의 모병제 논의는 주로 현 징병제의 단편적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비롯된 '병역비리' 문제나, 병영 내 사건·사고로 인한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서 출발했었다. 하지만 당시 논의는 분단국가라는 한반도 특수성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20년대에 접어 든 최근의 병역제도 개선 관심은 '인구절벽의 시대'를 맞아 종전과 같은 규모의 병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적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으로 심화된 '젠더 갈등'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접근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 병역제도 전환 사례와 한국의 입장

세계의 병역제도 추세는 어떠한가? 한국과 이스라엘 등 90여개 국가가 징병제를 미국과 독일 등 70여개 국가가 모병제를 택하고 있으며, 40여개 국가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 중이거나 '유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각국의 사례 중 냉전에 의해 분단국이 되었다가 경제적 선진화와 통일을 성취한 독일 사례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 동·서독으로 분단이 되었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를 통해 안보를 보장받는 동시에 미국의 경제적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탈냉전의 호기를 잡아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이루었다. 독일은 통일 후 9년이 지난 1999년 모병제로의 전환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한 조치로 복무기간을 18개월→10개월→6개월로 단축했으며, 병력규모는 4만에서 18.5만 명으로 점차 감축하였다. 독일은 이처럼 조건이 성숙한 후에도 충분한 경과조치를 거쳐 2014년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은 우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해 있다. 2020년도에 33만 명에서 2036년에는 22만 명으로,



박 동 순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2040년에는 15.5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른바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다. 또한 취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군 복무를 취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정치권은 모병제로의 전환을 통해 '인구절벽'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안보 위협'과 '막대한 국방예산'이라는 현실적 쟁점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현재 이념에 의한 분단과 적대적 대치 상태로 지구촌에서 70년이 넘는 유일한 분단국가다.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탄도 미사일을 개발하여 한반도와 동북아를 불안과 위협 속에 몰아넣고 있다. 주변국 중에서는 중국의 '군사 대국화'와 일본의 '전쟁 가능국가'로의 변화 등은 한국에게는 잠재적인 안보위협이다.

### 안보 현실과 국방예산 등 연구 필요

병역의무는 가장 강제성이 높은 국가와 개인의 계약관계이다. 병역제도는 국가안보의 가장 기초가 되며, 형평성과 공정성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적 신뢰와 사회의 통합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치권에서는 병역제도 전환 문제를 현실에 대한 올바르게 정확한 분석과 인식을 다소 도외시한 채 막연하게 국민적 감정에만 호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에서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63.8%는 징병제 원칙을 유지하며 이를 보완·시행할 것을 31.8%는 모병제의 도입과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 인구절벽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 온 가장 큰 현실적 제약 앞에서 안보적 현실과 국방예산의 소요 등을 전문적·논리적으로 연구하고 대비해야 할 때이다. 한국은 이와 병행하여 국방개혁을 가속화하여, 병력위주의 군 구조를 첨단화·과학화된 군으로의 체질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최근 병영 내 급식문제 폭로 등과 같은 열악한 병영생활 환경을 국민 생활수준에 맞게 향상시켜야 한다. 더불어 취사·경비·시설관리 등의 지원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에 외주용역을 주어 군은 전투임무에만 특화되어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병역제도 전환은 이러한 내적 기반들이 성숙되고 북핵문제의 해결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 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병역제도의 전환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분단에서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손자병법의 첫머리에 "兵者(병자) 國之大事(국지대사) 死生之地(사생지지) 存亡之道(존망지도) 不可不察也(불가불찰야)"라고 했다. 군사의 문제는 나라의 중대사로서 국민들의 생사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존속하느냐 멸망하느냐하는 문제까지 달려있다. 따라서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진중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병역제도 전환은 먼저 국민적 의식을 통합하고 전문가집단의 충분한 연구를 통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후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국내·외적 환경과 여건에 맞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 정석환 병무청장 향군 방문, 김진호 회장 예방



김진호 회장은 6월17일 향군을 방문한 정석환 병무청장과 환담을 갖고 향군현안 및 병무정책 등 상호 업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왼쪽부터 손무현 사무총장, 김진호 회장, 정석환 병무청장, 김형수 국제협력실장.

### 향군역사 바로알기 ㉓

## 회원자녀 장학사업, 안보관 확고한 인재육성

향군장학사업의 역사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향군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회원 자녀들의 학업 및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본회와 각급회에서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장학사업의 시초는 1979년 국제한국전참전향군연맹의 사업으로 캐나다, 벨기에, 미국 등 우방국 향군회원들이 모두 3,600달러의 장학기금을 기탁해 옴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본회에서 안정된 장학기금의 확보와 장학사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1984년 2월 24일 장학금 이자로 회원 자녀 대학생 32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장학제도가 본격화되었다.

### 국제한국전참전향군연맹 사업으로 32명에게 25만원씩 지급

1987년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 중·고교생까지 확대하였다가 다시 1989년부터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1992년에는 제도를 개선하여 무공수훈자 및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중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각 20만 원씩 지급하였다.

1995년부터는 회원 자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지급액을 30만 원으로 축소하고 지급 인원을 각급회 1명씩으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1984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한 이래 본회와 각급회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40억여 원에 달한다.

이렇게 추진되어오던 향군의 장학사업은 33대 박세환 회장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박 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참전용사의 후손과 제대군인 자녀들이 생계가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국가와 사회가 외면한다면 향군이 나서 이들을 지원하여 희망을 주고 국가안보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자며 향군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 것이다.

우선 2009년 11월 안전행정부로부터 장학사업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기관으로 승인을 받고 100만 향군회원이 각 '1만 원 모으기' 운동을 시작하

여 2010년 말에는 10억 원 돌파, 2011년 11월에는 22억 5천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2012년 2월 향군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명실공히 공익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만 원 모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 12월에는 1,051개 단체와 4,839명의 개인이 참여하여 장학기금 35억 7천여 만 원을 조성하였다.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2012년부터는 대학생 36명을 선발하여 개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였고 중·고교생은 222명을 선발하여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

### 향군장학재단 설립, 회원권의 향상 장학금 100억 조성 캠페인

향군장학사업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10월 8일 재향군인의 날 행사시 각급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30명 내외로 선정하여 각각 100만 원씩 수여하고 있으며 장학기금도 추가 모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8월에는 KB국민은행 서울숲 지점이 3,000만 원, 2018년 1월 당시 주대진 전북향군회장이 500만 원, 2020년 2월에는 신아그립 이승섭 회장이 1억 원을 쾌척하였으며 2020년 12월에는 이규환 장학재단 이사장 500만 원, 황태연 영등포구 재향군인회장 500만 원, 정병원 변호사 500만 원 등 뜻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현재 장학기금은 약 4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향군장학사업은 향군의 설립목적인 상호 간의 친목도모, 회원 권의 향상, 국가 발전과 공익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목적사업으로서 향군의 백년대계와 국민적 보훈분위기를 확산하고 안보관이 확고한 인재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업이다. 1천만 회원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홍보실>

### 안보전망대

#### G7 정상, 미국 대북외교지지

G7 정상들이 6월13일(영국 현지시간) 미국의 대북외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북한 측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영국 콘월의 카비스 베이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뒤 발표된 이날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모든 관련 파트너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준비를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관여하길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며 “모든 국가에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 제재 이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북, 핵탄두 40~50개 보유

스웨덴의 민간 정책연구단체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6월14일(현지시간) 발표한 국제 군비 군축 국제안

보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올해 1월 기준 북한이 40~50개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지난해에 추정했던 30~40개 보다 10개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미국과 합의 후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 북, 초강력 EMP탄 개발

미 의회 자문단체가 “북한이 적의 지휘통제체계를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전자기파(EMP) 활용 무기인 초강력 EMP탄과 대포 개발을 완료했다”며 “서구 사회는 북한의 기만술 등으로 인해 북한의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초강력 EMP탄 개발에 깊이 관여했던 2명의 장성이 2004년 미 의회가 발족한 'EMP 위원회'에 증언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 탐정

국내 최대, 국내 1위! '재향군인회와 PIA'가 만나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 향군 탐정

“이제 당신도 탐정이 될 수 있습니다”

# PIA사실탐정사

### 재향군인회 PIA탐정사 최고경영자 2기 수료과정 모집

- ✓ 모집인원 : 30명 (현재 접수중)
- ✓ 8월 중순 2기 개강 예정
- ✓ 매주 토요일 대면 강의 (8주 과정)

5년 이상 중·장기 제대군인 1차시험 면제

### 재향군인회 PIA탐정사 과정 수료자 특전

1차시험 면제, 자격증 및 인증서, 수료증, 수료패, ID카드 신분증, PIA 배지, 조끼 등



- 주관 및 시행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평생교육원 / 한국특수교육재단
- 인증 및 평가 : 경찰청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 제71주년 6.25전쟁 기념식 ... 숭고한 희생 기억할 것



6.25전쟁 제71주년 기념식이 6월25일 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 해운대구에서 거행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념식에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며 "참전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방단신

### 백신 순회접종임무 수행, 한산도함 위문



서욱 국방부장은 6월21일 도서 지역 코로나19 백신 순회접종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산도함을 방문해 백신 접종 절차 준수 여부와 이상 반응 발생 시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서 장관은 행정선 또는 고속단정(RIB)·상륙주정 등을 이용하여 한산도함에 탑승하는 주민들의 이동 동선을 둘러보며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 함께한 군 관계자들에게 "도서 지역의 주민들께서 대부분 고령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불편함 없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성과 책임을 다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또 장병들에게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예방접종 지원 임무는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함은 물론, 한산도함의 전·평시 의료 지원 임무 수행태세와 능력을 향상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임무를 마치는 날까지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고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전역예정 장병 대상 온라인 취업박람회

국방부는 6월14일부터 18일까지 "힘내라 국군장병! 내일(My Job)이 있는 삶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KB 국민은행,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2021년 전반기 제2차 전역 예정 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한 장병들의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전역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9년부터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3월에 개최된 제1차 박람회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되어 장병들은 소속부대 내에서도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없이 1주간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다. 장병들은 취업박람회 홈페이지(<http://moti.career.co.kr>) 회원가입 후, SK 건설, 쿠광, 포스코 등 200여개 기업에 이력서 제출부터 화상면접·상담까지 원스탑(One-Stop) 입사지원이 가능하고 전문 상담사와의 1:1 화상 취업컨설팅, 전문 헤드헌터의 화상 모의면접과 공직·민간에 재직 중인 현직자 멘토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해발굴사업 홍보대사 송해선생 위촉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6월 24일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한 오피니언 리더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과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시료 채취의 절실함을 알리기 위해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원로연예인협회 사무실에서 송해 선생을 유해발굴사업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

송해 선생은 향후 국유단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유해발굴 홍보 영상 및 포스터 모델, 각종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유가족 시료채취 등 사업홍보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 6.25전쟁 71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 특별기획전

국방부와 전쟁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는 6.25전쟁 71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 특별기획전 행사가 6월22일부터 7월1일까지 전쟁기념관 2층 행사장에서 개최됐다. 특별기획전은 '2021 답음을 담다'라는 제목의 사진전과 VR 체험행사, 호국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사진전 '2021 답음을 담다'는 6·25전쟁 당시 모습과 현재 국군 장병들의 답은꽃 사진을 전시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군의 변함없는 조국수호 의지를 보여주고자 기획됐으며 6·25전쟁 당시 전투수행 모습과 지금 국군 장병들의 임무수행 모습을 사진으로 비교하면서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 전역 앞둔 장교들, 휴가 반납 임무 수행

### 최전방 소대장에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까지

전역을 앞둔 육군 장교들이 전역 전 휴가 반납을 자청하고 남다른 군인정신과 사명감으로 끝까지 임무에 매진하는 사례가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먼저 5사단 독수리여단 수색중대 손건(27세) 중위는 소대장으로 최전방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투입되어 GP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역 전 휴가 42일을 자진 반납한 후 최전방 경계작전에 임하고 있다.

손 중위와 임관 동기인 1사단 무적갈여단 공윤상(26세) 중위와 25사단 해룡여단 박동재(26세) 중위 역시 전역을 앞둔 최전방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휴가를 자진 반납하고 마지막까지 임무에 매진하고 있다. 공 중위는 강안 경계부대에서 소초장 임무수행 중 38일의 휴가를 반납했고 박 중위는 비무장지대에서 GP장 임무를 수행하며 21일의 휴가를 반납했다.

28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교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보영(27세) 중위와 윤택한(26세) 중위도 전역 전 휴가를 각각 11일과 16일씩 반납하고 마지막까지 훈련병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휴가를 반납하고 코로나19 방역 지원 현장에 자원해 일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교도 있다.

37사단 중원여단 김병수(26세) 중위는 전역 전 휴가 15일을 반납하고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충북 제천의 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자들에게 식사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방역 현장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중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과전을 지원하여 총 6개월 동안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지켰다.

이외에도 9사단 독수리여단 최형록(26세) 중위와 11사단 정보대대 남우섭(26세) 중위도 각각 29일과 14일의 전역 전 휴가를 반납하고 소대장으로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등 전후방 각지에서 전역을 앞둔 육군 장교들의 책임감 넘치는 헌신은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있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6.25 전사자의 가족을 찾습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6.25 전사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시겠습니다.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시료채취 참여

채취대상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방법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군병원, 예비군 동대, 보훈병원, 전국 적십자병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서울현충원) 방문 또는 전화신청

신원 확인 시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지급

문의전화 02-417-5255, 5414

# 국가 위한 희생과 헌신 기려...호국보훈의 달 정부 포상식

## 모범 국가유공 21명, 대외유공 11명 등 32명에 정부 포상



국가보훈처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포상식에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17명과 대외유공 인사 6명 등 총 23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예우향상을 위해 국가보훈처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실시하고 있는 정부 포상식이 6월21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올해는 모범 국가유공자 21명, 대외유공 인사 11명 등 총 32명이 포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행사에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17명과 대외유공 인사 6명 등 총 23명에게 포상

을 수여했다. 포상 훈격은 국민훈장 1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 표창 10명, 국무총리 표창 11명이다.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될 박기병(90세)은 최고령 수상자로 1950년 춘천사범학교 3학년 재학 중 교복을 입은 채 포병부대 포탄을 나르며 인민군의 남하를 막았고 이후 입대하여 유격대원으로 양구전투 및 가철봉전투 등에 많은 공적을 세워 1953년에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대외유공 인사 중에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게 되는 유희태(69세)씨는 일제강점기 한 집안에서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가문의 후손으로 2009년 발족한 (사)일문구기사 선양사업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훈처는 “이번 정부포상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정리초등학교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 제막

## 졸업생 6.25참전유공자 165명 명단 새겨...호국정신 기려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참전유공자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12월부터 경기남부보훈지청과 서정리초등학교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했던 ‘6.25전쟁 참전유공자 기념비 제막식’이 6월17일 평택시 서정리초등학교에서 열렸다.

김남영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용주 평택시교육장, 평택시 보훈단체장, 서정리초등학교 관계자 및 서정리초등학교 출신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본인과 유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서정리초등학교 재학생들의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 그림 편지 우수작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보훈처 관계자는 “100년



지난 2020년 12월부터 경기남부보훈지청과 서정리초등학교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했던 ‘6.25전쟁 참전유공자 기념비 제막식’이 6월17일 평택시 서정리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의 역사를 지닌 서정리초등학교에 6.25참전유공자의 공훈이 깃든 기념비를 건립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정리초등학교가 미래 세대들의 가슴 속에 호국보훈 정신을 새길 수 있는 산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념비에 각인된 165명의 이름은 2010년 9월 제3군사령부에서 서정리초등학교에 전달한 ‘졸업생 6.25참전유공자 명패’에 새겨진 165명의 명단을 토대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명단 및 병무청 기록을 재확인하여 최종 각인되었다.

### 보훈단신

##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활동 종료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약 1년 6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6월 24일 해단식을 갖고 종료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정부위원과 참전용사 및 국방·통일·문화·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포함 총 31인(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지원’, ‘유엔참전국 감사영상 상영’, ‘122609 태극기 배지 캠페인’ 등 대체 사업을 개발했고, ‘기억·함께·평화’라는 주제 아래 크고 작은 40여

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유해봉환식과 함께 거행된 ‘6·25전쟁 70주년 중앙행사’와, 미발굴 전사자 122,609명을 상징하는 ‘122609 태극기 배지 캠페인’을 통해 참전 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했으며 은화 형태로 제작된 ‘감사메달 수여’를 통해 8만여 국내 생존 6·25 참전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방역 마스크 지원사업은 국내외 언론 및 참전용사의 호평 속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 보훈복지의료공단,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6월18일 육군과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 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경남 하동군에서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사는 공단과 육군본부와 2011년 체결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육군본부와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수혜자는 6.25 참전유공자 김기권 어르신(89세)으로, 22사단에서 설악산 공비토벌, 문

등리 및 사창리 전투에 참전했다.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복지사업인 공단의 ‘나라사랑 행복한집’과 육군 본부의 ‘나라사랑 보금자리’는 두 기관의 역량을 더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공단은 공사에 필요한 공병대 인력, 건설 장비 등을 육군본부로부터 제공 받고 육군에게는 올해까지 270여 가구에 17억원 이상의 공사비용을 지원했다.

## 참전용사 변신 프로그램 ‘다시 영웅’ 공개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우를 높이기 위한 변신(메이크 오버, make-over) 프로그램 ‘다시 영웅(The New Veterans)’을 제작하여 6월11일 공개했다. 이번 작업에 참여한 9명의 참전용사는 90세 전후의 고령자로 6·25전쟁에서 학도병, 최초의 여군, 헌병대, 국민방위군, 미군 지원병 등으로 헌신하여 나라를 지킨 분들이다.

변신(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위해 패션 전문 기업인 ‘더 뉴그레이’와 지난해 국제사진 공모전(IPA) 언론 일반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진작가 ‘홍우림’이 함께 참여하여 제작의 전문성을 높였다.

이번 ‘다시 영웅’ 프로그램은 영상과 이미지에 익숙한 2030 세대들에게 참전세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시 도회장 릴레이 제언 / 향군을 말한다 ⑥

## 분단된 강원도, 폐쇄적 DMZ '평화지역'으로 선포

### 평화공감 DMZ 종주행사, 안보 중요성과 평화 가치 되새겨

강원도는 남북으로 갈라진 세계 유일의 분단 도로서 이념과 대립의 상징적 지역으로 5개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이 휴전선과 접하고 있으며 휴전선 155마일(248km)중 강원도가 접한 철원군에서 고성군까지의 구간이 58%인 90마일(145km)의 비무장지대(DMZ)가 있다.

DMZ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진행된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되었다. 이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한은 휴전선으로부터 남, 북으로 각각 2km씩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바로 비무장지대이며 이곳은 민간인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지역이다.

#### 비무장지대 민간인 출입금지구역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평화지역 선포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 후 강원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긴장과 분쟁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그동안 폐쇄적, 방어적, 패배적인 DMZ "접경지역"명칭을 화합과 번영, 평화와 희망을 지향하는 "평화지역"으로 선포한바 있으며 향후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비하여 생태와 역사, 문화적 요소를 성장 동력으로 하여 설악산과 금강산 일대를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묶고 남북이 함께 「DMZ 생명공원」을 조성하여 평화와 관광을 기반으로 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평화지역에는 안보·문화·생태 관광지로써 지역과 기간에 따라 제 2·4 땅굴과 평화·을지·칠성전망대, 노동당사, 백마고지전적비와 평화의 댐, 백담사, 건봉사, 두타연, 화진포(김일성, 이승만 별장), 통일전망대 및 DMZ 박물관 등을 차례로 견학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권 동 용  
강원도 향군 회장

강원향군은 이와 같은 조건과 상황을 이용하여 지난해 강원도로부터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5박 6일의 일정으로 「평화공감 DMZ 종주 행사」를 기획하여 시행한바 있다.

이 행사는 평화지역의 가치와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홍보 및 브랜드마케팅으로 전국에서 100여명이 참가하여 직접 체험을 통해 이를 SNS상에 다양하게 소개한 글들이 집중 포스팅 되어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과 함께 DMZ 평화지역을 체험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단 현실의 상황과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평화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평화공감 DMZ 종주 행사 강원도와 향군, 윈-윈 모범사례

나아가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하지 못한 본 사업을 재향군인회가 위탁받아 시행함으로써 강원도와 향군이 윈-윈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향후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재향군인회 임직원 및 회원들께서도 본 사업의 취지와 의의에 맞게 이곳 DMZ 평화지역을 직접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한다면 향군의 일원으로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1천만 향군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본다.

## 전북 군산시 향군-광주 보훈청 제대군인센터 MOU

### 제대군인 복지 및 고용창출 상호 협력...회원 권익신장도



전북 군산시 향군(회장 유희옥)은 6월1일 향군회관에서 광주지방보훈청 김정희 제대군인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대군인 복지 및 고용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복지지원, 그리고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구인 구직에 필요한 정보교환 등 제대군인 취업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제대군인을 적극 추천하고 위를 위한 구인조건에 적합한 제대군인 인재정보 등을 제공,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이들을 위한 봉사 및 향군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 6.25 참전용사 송고한 일과 희생정신 기려

### 충남 금산군 향군, 자택 방문 위문품 직접 전달



충남 금산군 향군(회장 이왕근)은 6월22일 보훈회관에서 관내 6.25 참전용사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전달이 힘든 상황에서 회원들은 위문품을 포장하고 직접 자택으로 위문품을 전달, 참전용사의 송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렸다.

아울러 위문품과 함께 소형 태극기와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안내문을 동봉,

홍보활동을 겸했으며 금산군 라이온스클럽에서 기증한 마스크 130세트도 함께 전달했다.

특히 여성회 회원들이 보훈가족 가사돕기 차원에서 밀반찬을 전달부터 준비하여 함께 전달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현재 금산군 6.25 참전용사는 99명으로 이날 향군회원들은 직접 자택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감우재 전승지 찾아 참전용사 호국의지 기려

### 서울 관악구 향군

서울 관악구 향군(회장 김사연)이 제기주년 6.25를 맞이하여 6.25참전유공자 및 향군 회원 등과 함께 6.25 전쟁 당시 우리국군이 최초의 승전보를 올렸던 충북 음성군 소재 감우재 전승지를 찾아 참배하고 그날을 기억을 되새기며 참전용사들의 위훈과 호국의지를 기렸다.

한편 이날 충청북도 향군 고종훈 회장은 행사장을 찾아 음성지역을 방문해 준대 대해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음성 특산품 쌀(1kg) 80봉을 전달했다.



## 경기 안양시 향군, 안보 보훈단체 및 군부대와 간담회

경기도 안양시 향군(회장 서흥근)이 안보보훈단체 및 군부대와 교류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5월21일부터 26일까지 안양시청, 특전사동지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수도권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5월21일 안양시청 민·군 협력관, 24일 특

전사동지회장, 25일 수도권단 대외협력실장, 26일무공수훈자회 및 상이군경회장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 안양시 향군은 지역 내 안보 보훈단체 및 군부대와 능동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가평군 향군, 6·25전쟁 71주년 사진전

무공수훈자회 · 6.25참전  
유공자회와 공동 개최

##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도 병행

경기도 가평군 향군(회장 장석윤)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 지부 가평군지회와 6.25 참전 유공자회와 공동으로 6.25 전쟁 71주년 사진전을 개최했다.

19일까지 열린 사진전에는 6.25 전쟁의 참혹함과 사회상을 담은 사진 28점이 전시됐으며 사진전 기간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6.25 전사자 DNA 시료 채취 등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도 병행됐다. 주최 측은 “나라를 위해 목숨

을 아끼지 않은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꽃 정원을 방문하는 가족단위 관광객과 전쟁을 모르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6.25 전쟁의 올바른 이해와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의 평화는 많은 분들의 희생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후손들이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살아야 할 바란다”고 당부했다.



## 강원 흥천군 향군, 농촌일손 돕기 나서



강원도 흥천군 향군(회장 이효식)은 6월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흥천군 남면에 거주하는 고령의 6·25참전유공자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배 적과(열매 슈기) 작업과, 제조작업, 집안정

리 등 농촌일손 돕기 에 나섰다. 이날 흥천군 향군회원들은 종일 구슬땀을 흘리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농촌인력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 어르신 댁에 일손을 보탰다.

## 충남 천안시 향군, 박상돈 시장에 감사패

회원 복지 및 권익 향상...회관 환경 개선 지원도

충남 천안시 향군(회장 방수정)은 6월4일 향군회관을 방문한 박상돈 시장에게 투철한 안보관과 나라사랑정신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새로운 천안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에 더해 재향군인회 회원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회관환경 개선과 향군활동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답했다.

박상돈 시장은 “국가 안보와 지역사회 발전, 재향군인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위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아 영광스



충남 천안시 향군이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천안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럽다”며 “앞으로도 역사와 문화가 의 권익증진 등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천안시와 재향군인

## 한국전쟁참전기념재단에 '추모의 벽' 성금 전달

미 동부 향군, 참전용사 희생과 한미동맹 의미 기려



향군 미 동부지회(회장 김인철)는 6월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한국전쟁추모공원에서 실시된 6·25전쟁 71주년 기념헌화식에 참석하여 향군회장을 대신하여 한국전쟁참전기념재단 이시장(예.대장 존 킬렐리)에게 추모의 벽 성금(미화 1만불)을 전달했다.

한국전쟁참전기념재단은 추모의 벽 완공이후 연 400만명의 방문객 및 중·고등학생 등 후세들에게 한국전 참전용사의 희생

과 한미동맹의 의미를 교육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이며 금번 향군의 성금은 이러한 노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워싱턴DC 6·25전쟁 71주년 기념헌화식에는 이수혁 주미한국대사, 존 킬렐리 한국전쟁참전기념재단이사장, 메릴랜드주지사 영부인 유미 호건 여사 등 다수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 경기 의왕시 향군, 지역안전 및 환경보호 동참

친환경 캠페인 '에코 플로깅 챌린지' 참여

경기도 의왕시 향군(회장 이원표)은 6월8일 지역 청계천 일대에서 '의왕 에코 플로깅 챌린지' 활동을 전개했다. 에코 플로깅은 가볍게 뛰거나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의왕시 향군회원들은 이날 청계천 주변 산책로 곳곳에 버려진 비닐, 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원표 회장은 “에코 플로깅을 통해 청계천을 깨끗이 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경관을 즐기며 건강도 지킬 수 있어서 더 보람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역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향군은 6월8일 친환경 캠페인으로 청계천 주변 산책로 곳곳에 버려진 비닐, 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한편 의왕시 향군은 에코 플로깅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할 다음 주자로 청계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목했다.

# 각급회 소식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향군 각급회 활동

(5월21일~6월20일)

## 서울시향군



**서울시회** : 6월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현충원 참배, 호국영령 열 기러.

**동대문구회** : 6월16일 답십리 '장영당'에서 16지사 위령제례 봉행, 애국충정 기러.

**성북구회** : 6월1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목동 실내사격장에서 사격대회를 개최하고 호국용사 애국정신 계승.

**서대문구회** : 6월8일 향군회관에서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하여 안보결의대회 개최.

**마포구회** : 6월1일 흥제전에서 하천정화 활동 실시.



관련 적전지를 찾아 순례 행사를 갖고 호국의 지 고취. 6월10일 '6.25전쟁 그 역사를 기억하라'를 주제로 자매결연학교인 대구일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안보공감 강연 실시.



**중구회** : 6월1일 삼덕초등학교 5학년 학생 82명과 교사 5명을 초청, 대부분 전적지에서 나라사랑 안보 체험 전적지 답사행사를 실시.

##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5월31일 향군회관에서 제74차 전국총회 및 제41차 인천시회 개선총회 개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 가져. 6월18일 향군회관에서 관내 킹스 치과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회원 복지향상 기여. 6월1일 인천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굿네이버스가 주관, 보훈증진과 나눔 기부 확산 협약식 참석.



**부평구회** : 6월8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판문점을 견학하고 호국의지 기러.

## 경기도 향군

**과천시회** : 6월2일 양재천에서 환삼덩굴, 돼지풀 등 유해식물 제거 봉사활동을 실시, 쾌적한 하천관리 및 생태계 보존활동 전개.

**이천시회** : 6월4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설봉공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연태준 이천시장

및 보훈단체장과 현장 간담회 가져.



**광주시회** : 6월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덴탈마스크 3만매를 군 지암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



**수원시회** : 6월1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수원시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를 방문하여 라면 타올 등 위문품 전달. 6월3일 현충일을 앞두고 현충탑을 찾아 참배 및 정화활동을 펼치고 호국영령의 위훈 기려.

**평택시회** : 여성회는 5월26일 평택시 예절교육원에서 진행된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석, 김장10kg를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지원.

**시흥시회** : 청년단은 5월29일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현충탑을 참배하고 주변 환경정화 활동 실시.

**파주시회** : 6월9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재가대상 66가구에 맞김치(210만원 상당, 가구당 5kg)후원.

## 강원도 향군

**인제군회** : 6월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보 및 통일외식 고취를 위해 통일안보 포스터 공모전 개최.

**홍천군회** : 5월27일 향군회관에서 여성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 충청북도 향군



**괴산군회** : 여성회는 5월27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 봉사활동 실시.

## 대전 충남 향군



**대전 충남도회** : 5월3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의 숭고한 위훈을 기리며 나라사랑 태극기 꽃기 행사 가져.

**대전 서구회** : 5월3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전현충원 126묘역에서 태극기 꽃기 봉사활동 실시.

**대전 중구회** : 6월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대전지구 전투 전적비, UN참전비, 총렬탑 등 호국 보훈시설에 대한 참배 및 정화활동 전개.

**대전 유성구회** : 5월3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전현충원에서 태극기 꽃기 봉사활동 실시.



**서천군회** : 5월28일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호국영령들의 위패를 모신 총령사 제 초작업 및 주변정화 활동 실시.

**보령시회** : 6월8일 향군을 방문한 32사단 제8361부대 연대장을 맞아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방안 논의. 6월15일, 16일, 17일 관내 명천초등학교에서 6.25전쟁 참상을 알리는 6.25전쟁 사진 전시회 개최.

**천안시회** : 6월9일 성환초등학교에서 박상돈 시장과 유가족, 보훈단체장, 육군 9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마고지 영웅 고요구봉 하사 추모행사.

**예산군회** : 5월29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기차역과 종합터미널, 주요 버스승강장에서 방역 봉사활동 실시.

## 전라북도 향군



**전북도회** : 6월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립 임실호국원을 방문, 호국영령 참배. 여성회는 6월16일 농협 완주시군지부와

## 부산시 향군



**기장군회** : 여성회는 6월2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관내 6.25명비, 무공수훈전공비 등 현충시설 참배 및 정화활동 실시.

**부산진구회** : 5월26일 부산진구청을 방문 서은숙 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관내 보훈시설 단체 참배 계획 등 호국보훈의 달 행사 논의. 6월4일 환경의 날 및 현충일을 맞이하여 호국보훈시설과 서면 로타리 일대 환경 정화 활동 펼쳐.

**해운대구회** : 여성회는 5월27일 관내 생활이 어려운 6.25 참전용사 세 분에게 대형 이불세트와 생활용품 등을 전달.

## 대구시 향군

**수성구회** : 6월4일 항일운동 및 임진왜란



함께 완주시 고산면 삼기리 양과 재배농가를 찾아 농촌봉사활동 실시.

**김제시회** : 6월6일 현충일을 맞아 관내 순동 균경묘지, 성산공원 충혼비를 참배한 뒤 지역출신 호국영웅인 백마고지 육탄 3용사 안영권 하사 전공기념비를 찾아 헌화 참배.



**무주군회** : 6월4일 관내 한풍루에서 충훈탑 참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 쓰레기 및 오물 수거 활동.

**부안군회** : 6월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림공원에서 호국 영령탑 참배 및 환경 정화활동 실시.

**남원시회** : 여성회는 6월5일 농촌재능나눔 일반단체 활동지원사업 일환으로 인월면, 운봉읍, 주천면, 송동면, 금지면등 5개소 마을회관 청소봉사.

**임실군회** : 5월28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임실호국원에서 묘비 정화활동 및 태극기 꽃기 봉사활동 실시. 여성회는 6월7일 임실군민회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봉사활동 참여.

**군산시회** : 6월4일 현충일을 맞이하며 군경합동묘지 묘비닦기, 태극기 꽃기 등 봉사활동 실시.

**전주시회** : 6월4일 낙수정 균경묘지에서 추념식 및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호국영령 열 기려.

**고창군회** : 6월10일 일손이 부족한 아산면 구암리 농가를 찾아 복분자 수확 봉사활동 실시.

**진안군회** : 여성회는 6월10일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되는 이웃 안부전하기 프로젝트 참석.

**완주군회** : 6월14일 보훈회관에서 박성일 완주군수와 안보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안보현안 논의.

###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전남도회** : 5월28일 안보회관에서 직능대표 회의를 갖고 상반기 주요 추진 업무 및 성과 공유. 6월16일 안보회관에서 김재찬 흥보위원장에게 위촉장 수여.

**광주 남구회** : 5월28일 향군회관에서 김종길 도회 안보부장을 초청, '국가안보의 중요성'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목포시회** : 5월28일 평화광장 일원에서 목포사랑운동 전개. 6월6일 목포 아동원을 찾아 간식을 전달하고 위로.

**보성군회** : 6월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현충공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정화 활동 실시.

**해남군회** : 6월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현충공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정화 활동 실시.



**무안군회** : 6월2일 현경면 양과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실시.



**화순군회** : 6월17일 민경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향군가족을 위해 사비 200만 원을 쾌척, 회원자녀 4명에게 각 50만원씩 장학금 전달.

**함평군회** : 여성회는 6월12일 함평 노인 복지회관을 방문, 도시락 봉사활동 실시.

**장성군회** : 5월25일 장성호 수변길 환경정화 봉사.

**진도군회** : 5월21일 허경호 사무국장은 관내 석교초등학교 체육관에서 '6.25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학생 안보교육 실시.

### 경상북도 향군



**칠곡군회** : 6월5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애국동산 묘비 및 주변 환경 정화작업 실시.



**영주시회** : 여성회는 6월1일 현충일을 앞두고 충훈탑주변 청소와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활동 실시.

**포항시회** : 여성회는 6월3일 현충일을 앞두고 북구 덕수동 수도산 충훈탑에서 환경 봉사활동 실시.



**경산시회** : 6월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공원 일대 환경정화활동 실시하고 호국

영령 열 기려.

### 경남 울산 향군



**경남 울산시회** : 6월4일 생명나눔 실천 경남지부와 협약식을 갖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안보활동 동참 등 상호 협력. 손도수 회장이 6월15일 경남지역 안보보훈단체 연합회 주관으로 보훈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신임 연합회장에 선출.

**창원 마산 합포 회원구회** : 6월3일 해병대 진동지구 전집비에서 39사단 119여단 6대대에서 실시하는 유해발굴사업 개토식 참석. 여성회는 6월4일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이하여 산호공원 충훈탑 주변 정화 활동 실시.

**창원 진해구회** : 5월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소죽도 해외참전기념비 참배 및 주변 환경정화활동 실시.

**창원 의창 성산구회** : 6월11일 라라한방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 의료복지 증진.

**남해군회** : 6월1일, 7일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접종도우미 봉사.

**거제시회** : 6월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거제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전달식에서 안보단체 및 65세 이상 향군 정회원 및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식료품 키트 전달. 장승포동 여성회는 6월7일 관내 전물군경합동묘지 주변에 정화작업 실시. 하청면회는 5월29일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현충탑 정화활동 실시.

**통영시회** : 여성회는 6월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에 산재한 충훈탑 및 전적비, 무공수훈자비등에 대한 환경정화 활동 실시. 6월15일부터 18일까지 생계곤란 6.25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분들에게 생필품 세트 전달.

**양산시회** : 6월4일 물금읍 향군 여성회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충훈탑 및 춘추공원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실시.

**합천군회** : 여성회는 6월1일부터 사흘간 관내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하여 밀반찬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위로.



**하동군회** : 6월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호국공원 제초 및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순국선열들의 열 기려.

**김해시회** : 6월1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안보단체장 및 회원들을 초청, 삼계탕 대접. 6월2일 시의회를 방문, 송유인 의장을 예방하고 향군현안 및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협조 요청. 6월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

이하여 관내 무공수훈자비, 6.25참전유공자비, 베트남전쟁유공자비에서 환경정화활동 실시.

**창녕군회** : 6월1일 박진전쟁 기념관에서 거행된 6.25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참석.



**거창군회** : 6월16일 향군회관에서 제33대 김윤수 회장 취임식 개최. 여성회는 6월8일 코로나19 예방 접종센터에서 접종 지원 봉사활동 실시.



**진주시회** : 6월12일 향군회관에서 강민국 국회의원 주관 안보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현안 논의.

**울산 울주군회** : 상북면회는 6월6일 상북면민체육관 내 호국위령비 앞에서 위령제를 개최, 6·25 참전용사의 숭고한 정신 추모.

**울산 남구회** : 6월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현충탑을 참배하고 호국영령 열 기려. 신정4동 여성회는 6월16일 여천천 일대 환경정화 활동 실시.

**울산 동구회** : 6월14일부터 18일 사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회원 80여명에게 기림세트 증정.

###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6월17일 해군 제기동전단을 방문하여 양민수 전단장과 간담회를 갖고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 한 후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의 건전한 안보의식과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7회 나라사랑 그림 공모전 개최.



**서귀포시회** : 서흥동회는 6월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관내 추념비 2곳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념식 거행.

친목단체 활동

박미옥 신임 회장을 선출



국군간호사관학교총동문회(회장 박미옥)는 5월27일 향군회관 회의실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박미옥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ROTC 창설60주년 기념식



ROTC중앙회(회장 박진서)는 6월1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ROTC 창설6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향군-코오롱인더스트리 MOU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개발사업 추진



향군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6월22일 친환경 공법 기반의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국에서 군용으로 사용된 후 폐기 또는 소각되는 폐플라스틱의 발생량을 조사하고 원료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데이터화할 예정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향군과 협업, 비전투용 생활용품을 주 대상으로 조사한 후 사용 후 대부분 소각 폐기되는 군용 폐플라스틱을 재생 PET(폴리에스테르)용 원료로 공급받을 계획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군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 영역을 확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전국에 10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전 군을 대상으로 풍부한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는 재향군인회와의 협력으로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확보 등 높은 사업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현충원 참배, 호국영령 얼 기려



성우회(이종욱)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3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호국영령의 얼을 기렸다.

화살머리고지 전투 추모행사 참가



육군예비사관학교총동문회(회장 김면중)는 6월5일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전투 현장에서 제5보병사단 주관 추모행사에 참가했다.

육군학사장교 창설 40주년 기념식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회장 남권희)는 6월18일 괴산향생군사학교에서 육군학사장교 창설 40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도솔산전투전승 추모행사



해병대전우회 (총재 이흥희)는 6월19일 양구군 도솔산 전투위령비 앞에서 제70주년 도솔산전투 전승 추모행사를 거행했다.

육군종합학교전우회 개명  
‘전시사관학교전우회’ 로

6·25전쟁 당시 다수의 소대장을 배출했던 육군종합학교전우회가 전후 세대에게는 육군종합행정학교, 육군종합군사학교 등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시사관학교전우회’ 로 개명했다.

육군종합학교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15일 부산 동래에 세워진 전시 체제하의 사관학교로 1951년 8월18일까지 약 1년 동안 육군종합학교가 배출한 장교는 총 7288명으로, 주로 최전선의 전투를 이끌다 거의 절반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쳤다.

향군 할인가맹점

▲ 향군 할인가맹점 협약 업소현황 전국 1,151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 (http://korva.or.kr) 향군 할인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시 해당 지역 시·도/시·군·구 재향군인회로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미소the에쁘치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

대로 393) 1661-1361 : 10%

• 라라한방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26, 8~10F) 055-286-3377 : 비급여 10%

식당/음료

• 본가야숯불(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96) 055-324-3388 : 10%

기타

• 영광제일장례식장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308-3) 061-351-3131 : 시설사용료 50%

• 대양 노인주간보호센터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159) 053-572-8877 : 10%

• 라데팡스안경원양산점 (경남 양산시 중앙로 173-1) 055-363-6226 : 전 제품 정가 40%

▲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051-990-6114 : 10~20%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보니파시오 요양병원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43-5) 042-717-1000 : 20%

• 성심치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3) 031-747-4340 : 10%

• 연세안과의원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65번길 17) 032-543-3471 : 정상가 3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남해안대로 857) 055-644-1777 : 10~15%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1577-5800 : 비급여 10%, 제증명 50%

• 거봉 백병원 (경남 거제시 계룡로 5길 14) 055-733-0000, 비급여부분 10%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읍 새재2길 32-3) 054-504-7077 : 객실 30%

•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010-4692-1219 : 20~30%

• 신안비치호텔 (전남 목포시 해안로 2) 061-243-3399 : 객실 30%

• 웨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02-221-2000 : 정가의 40~50%(디럭스 객실, 조식)

• 그린라군 호텔 인 설악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41) 010-6728-2030 : 특가

기타

• 두산익스프레스 (대전시 서구 월평중로3번길 95) 042-488-0424 : 이사비용 10%

• 진주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20%

• 엠플러스웨딩(군인공제회관 내)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 군인공제회관 3,4층) 02-2190-2500 / 2222 : 15%

• 코바플라워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48-1) 02-3679-7070 : 근조 3만 화환 78,000원 / 축하 3만 화환 59,000원

특별기획 / 호국산성 기행

⑥ 김포 문수산성

# 프랑스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병인양요, 그 역사의 현장

## 속중 때 축성, 강화 입구를 지키는 호국산성 ... 복원공사 통해 과거 위용 되찾아



경기도 김포시 문수산의 정상에서 산줄기를 따라 해안지대로 이어지는 문수산성은 조선 말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과의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이다. 강화도의 갑곶진을 마주보고 있는 해발 37m 문수산의 험준한 줄기에서 해안지대를 연결한 테피식 석축산성이다.

명칭은 산내에 있는 문수사에서 유래하였다. 이 성은 갑곶진과 더불어 강화 입구를 지키는 성으로, 1694년(숙종 20)에 축성되었고 1812년(순조 12)에는 대대적으로 중수되

었는데, 다듬은 돌로 견고하게 쌓았고 그 위에 여장을 둘렀다.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이었음을 알려주듯 해안 쪽의 성벽과 문루는 파괴되어 없어졌지만 나머지 산성의 모습은 상당부분 복원되어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당시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의해 프랑스 선교사들이 희생을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함대사령관 로즈 제독이 10월11일 군함 7척, 대포 10문, 병력 1천을 거느리고 조선에 침입하여 10월16일 강화부를 점령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는 순무영을 설치하고 양헌수를 천종에 임명하여 강화도를 수복케 하였으나 10월26일에 벌어진 문수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가진 총포의 위력을 당해낼 수 없어 패배하고 말았으며 이때 해안 쪽의 성벽과 문루가 모두 파괴되었다.

석성인 문수산성이 처음 축조된 것은 1694년(숙종20)으로 둘레 2,400m, 성벽 위에 낮게 쌓은 담인 여장(성가퀴)이 2173곳, 성문 3곳이었다. 이후 1812년(순조 12)에 대대적으로 고쳐서 쌓았다.

성곽의 총 길이는 6123m인데 현재 남은 구간은 4,640m이고 해안 쪽의 없어진 구간 등 성벽이 없는 부분은 1483m이다. 성곽에 들어간 돌은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으로 다듬어진 돌로 매우 튼튼하게 쌓았다. 옛 지



도에 따르면 성문은 북문인 취예루와 남문인 희우루, 그리고 서문인 공해루 등 3개의 문과 4개의 아문(암문) 등 총 7개의 성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문과 북문, 동아문과 남아문 등 4개 문만 남아있다.

문수산성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문수산 동쪽 가장 높은 지대에 세워진 장대다. 조선 시대 관군을 지휘하던 장수가 호령하던 곳으로 완전히 허물어져 흔적조차 없던 곳을 2009년 첫 발굴조사 후 2017년 5월 출토

마 팔작지붕 형태의 목조 건축물로 복원했다. 장대는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에 대항하여 지휘를 하던 안보유적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는 만큼 문수산성을 찾거든 복원된 장대는 꼭 올라보기를 권한다.

1964년 사적 제139호로 지정된 문수산성은 병인양요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해안 쪽 성벽 7개의 성문 일부가 유실됐지만 꾸준하게 보수 및 복원 공사를 거치며 현재 본래의 위용을 되찾았다.

### 탐방 / 참전기념 시설물 ① 워커 사령관 추모비

## 절체절명 위기상황 속 대한민국 구한 월턴 해리스 워커 장군 최후 보루 낙동강 방어전투 지휘... 인천상륙작전 성공 디딤돌



국군 제6사단 2연대 수송부 정비대 민간 수리공과 박경례(무면허)의 트럭 시험주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이다. 워커 사령관은 앞 유리창 밖으로 튀어나가 즉사했고, 운전자는 과실치사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절체절명의 위기상황 속 한국을 구한 월턴 해리스 워커 장군은 그가 세운 공로에 비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 7월,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을 앞두고 워커힐에 위치한 추모비와 도봉역 2번 출구 맞은편 아파트 대로변에 위치한 워커 장군 전사지표지석을 방문해 잠시라도 묵념하도록 하자. 그가 있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현재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 선 민  
향군 대학생 인턴기자

절체절명 위기상황 속 대한민국 구한 월1950년 6.25전쟁 당시 UN의 22개국 젊은이들이 자유와 평화수호를 위해 우리나라에 왔다. 우리 국군의 희생도 매우 컸지만 이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은 오늘 의 빛나는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재향군인신문은 인터넷 안보신문 '코나스'의 협조로 6.25 전쟁 참전기념시설물(참전비, 기념공원 등)을 소개하여 참전용사들에게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워커 사령관 추모비

올해는 6.25전쟁 71주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유

엔군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비교적 사람들에게 덜 알려진 수도권 추모 장소 중 한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기도 구리시와 인접한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워커힐 호텔 내에는 월턴 해리스 워커 사령관의 추모비가 있다. 워커힐 호텔은 6.25전쟁 때 초대 주한 미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워커힐이라는 명칭으로 지어져 SK네트웍스에서 운영하는 호텔이다.

미국 텍사스주 벨턴 출신인 워커 장군은 1950년 7월 한반도로 파견돼 '낙동강 방어전투'에서 활약했다. 당시 낙동강 방어선은 최후의 보루였다. 만약 낙동강 방어선이 뚫리면 한국 정부는 제주도로 쫓겨나가 해외에 망명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투를 지휘한 사람은 바로 워커 사령관(당시 중장)이었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한국을 지키겠다"며 굳은 의지를 내비쳤던 그가

내린 작전 명령은 "사수 아니면 죽음(stand or die)"이었다. 그는 내선작전을 펼쳤는데, 이는 외부에서 포위, 협공 따위의 형태로 공격하는 둘 이상의 적에 대하여 중앙에 위치해 상대하는 작전을 뜻한다. 그는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며 내린 상황판단을 근거로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 또, 공중우세권 및 제해권을 장악하고 병력 물자를 신속히 증원했으며 전투경찰을 활용해 치안확보에 주력했다. 이를 통해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승리하고, 맥아더 원수가 구상하던 인천상륙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다.

그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있던 그해 12월 23일 성탄절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의 아들 샘 워커 대위는 한국전 최전방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승리했고, 이 공로로 은성무공훈장을 받게 됐다. 워커 사령관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 지프차를 타고 미 제9군단 예하 24사단 전투지휘소를 향해 이동하던 중 지금의 서울 도봉동 596-5번지에서 트럭과 크게 충돌했다. 한



건강정보

# 심한 불안감 ‘강박장애’ 질환... 심한경우 자살 시도 스트레스 관리 중요, 약물치료 및 인지행동 치료 도움



‘강박장애’란 원하지 않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서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질환이다. 예를 들어 손에 세균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씻게 되는 증상이다.

### 발생 원인

강박장애의 발생에는 생물학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이 모두 관계된다.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세로토닌 시스템의 이상과 뇌의 전두-선조 신경회로의 기능적 이상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강박 증상이 악화되는 양상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강박 증상에 심리적인 원인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요 증상

증상은 여러 종류로 나뉘어 지는데 가장 흔한 유형은 ‘오염-청결 강박’으로 더러운 것에 의해 오염되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이를 없애기 위한 행동으로 손을 반복적으로 씻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확인 강박’의 경우는 문이 잠겼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과 같은 증상을 말

하고, ‘대칭/정렬 강박’은 물건이 바르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외에도 필요없는 물건을 계속 모으게 되는 ‘수집 강박’이나, 불편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 치료법

현재 알려진 강박장애의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다만 스트레스가 강박 증상 악화에 관련될 수 있으므로 평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강박장애의 치료로는 약물치료 및 인지행동 치료가 도움이 된다. 약물치료 중 대표적인 약물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로 일반적으로 4~6주 후에 효과가 나타나고 최대 8~16주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약물이 존재하고 개인에 따라 약물 반응 및 부작용 발생에 차이가 있어 인내를 가지고 약물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치료와 더불어 인지행동치료도 도움이 되는데 ‘탈감작’, ‘노출 및 반응방지’ 등의 기법이 활용된다. 특히 강박장애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치료받지 않으면 증상이 지속된다. 강박장애가 만성화되다 보면 우울증, 양극성장애와 같은 기분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며 자살사고, 자살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환자들 중에는 심한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 향군장학기금 기부

(21년 4월 23일 ~ 21년 5월 23일)

- ▶ 정기 기부 단위: 만원(기부누계)
- 前 향군홍보실장 이정호 1만원 (281만원)
- 권율부대 강모아 1만원 (71만원)
- 권율부대 김홍수 1만원 (10만원)
- 향군장학재단 정세관 1만원 (4만원)

-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 417-5887)
- ♣ 본 내용은 인터넷 “향군장학재단” 홈페이지(kvaf.or.kr)에도 게시하였습니다.

###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기부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고객과 함께 50년, 고객감동을 안고 달려갈 100년

# 당신과 함께 동행했기에 가능했던 50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업체인 중앙고속은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해 당신과 함께  
달려갈 준비를 합니다.



“도로 위의 퍼스트 클래스 중앙고속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전우여! 어디에 ...

- ◆ 황생열씨가 월남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를 찾습니다. 9사단 백마부대 사단 사격단(대) 소속으로 1차 파병 67년 1월 12일 ~ 68년 12월 1일, 2차 파병 69년 3월 15일 ~ 69년 10월 10일까지 함께 근무했던 전우를 찾습니다. (010-3035-0008)
- ◆ 전인남씨를 대신해서 후배 정안조씨가 1981년 2월부터 1983년 9월까지 17사단 602대대 2825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윤용문 전우(1960년생)를 찾습니다. 찾습니다. (010-5304-3648)
- ◆ 최인주씨가 1984년~1986년 대구 50사단 내 포병연대 수송부에서 근무했던 김영곤 중사와 김상배 중사,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전우를 찾습니다. (010-3740-8150)
- ◆ 함승열씨가 봉호, 성태, 영욱 등 30년 전 같이 근무했던 27사단 포병연대 251대대 전우들을 찾습니다. (010-8633-5672)
- ◆ 이호열씨가 학사장교 ROTC로 1980년대 중반에 입대한 친구 원기섭씨를 찾습니다. 학교는 강원대학교를 다녔으며 왕십리 외가택에 방학 때면 놀러 와서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낸 친구라고 합니다. (010-3235-2912)